

대행 스님

자기 주인 자체가 실참이요 실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또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이 말은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할 적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관념과 고정 행, 고정된 말이 없고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했던 겁니다. 색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색이 역력하다고 하는 뜻에서 바로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간편하게 공의 뜻을 그대로, 우리는 주인공에서 고정됨이 없는 뜻을 표현할 때 현대에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전소가 있다면 그 발전소에서 용량대로 용도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전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 용량대로 자기의 용도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천수만 가지로 용도는 많습니다. 전력의 용도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덴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덴 적게 쓰고, 그릇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걸로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다. 자기가 그릇대로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잠시도 쉬는 사이가 없고, 잠을 자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쉬지 않고, 일어나도 쉬지 않고 앉아도 쉬지 않는 거는 바로 숨 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근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가발전소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는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는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등이 합쳐서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모두 각자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무명체를 가지고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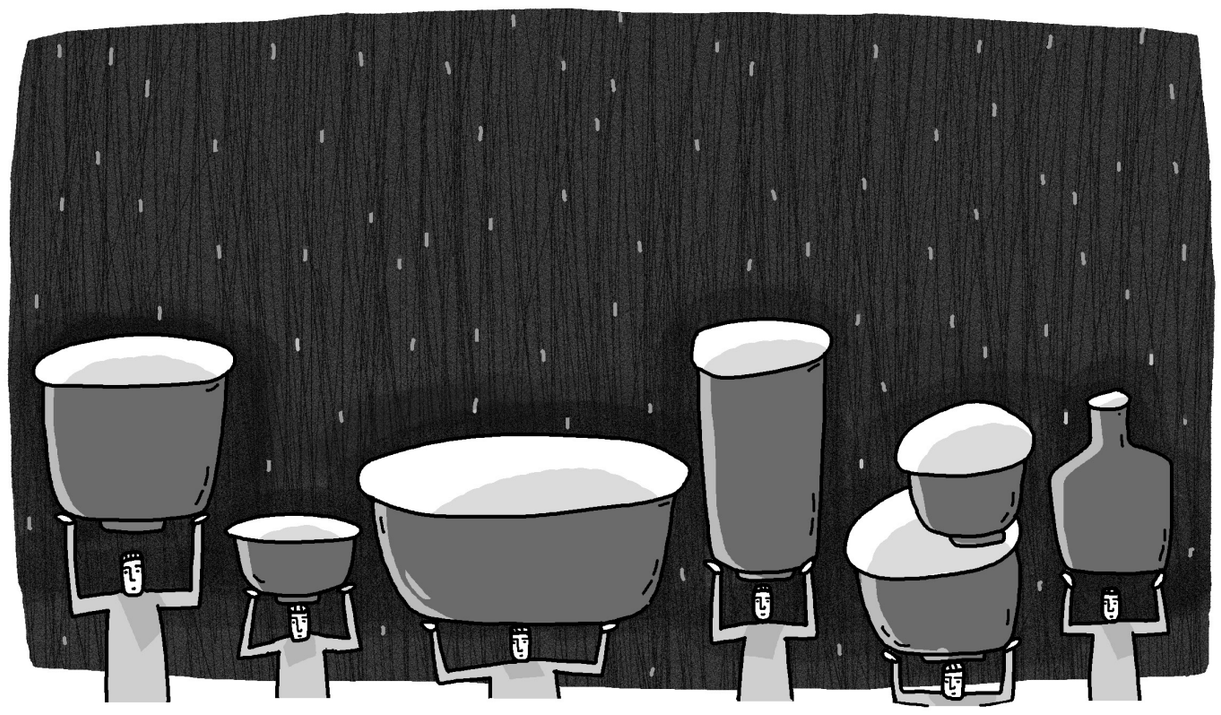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왜 무명체라고 했을까? 금이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명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되지 못하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은 중생이로되 금이 빛나듯이 빛이 난다면 으레 남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용량에 따라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차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똑같이는 못 합니다마는 항상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自性)의 자가발전소는 꺼진다거나 켜진다거나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 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이 사는 데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뭘 가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 돈을 갖지 말랬나요?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용량을 아주 맛있게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했으면 요거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고 또 딴 걸 합니다. 딴 거 할 때, 전력으로 비유를 했으니 계속 전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이거를 또 돌립니다. 이거를 돌려서 쓰고 저거를 돌려서 쓸 때,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쓸 때에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끕니다. 끄고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불을 켜고서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고는 돌아서선 딴 거 하면서도, 그거는 놓고 벌써 딴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 이상스러워요. 여러분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백 마디를 해야 하는 일 같은 거 말입니다. 나중엔 결국 터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씀씀이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 용량대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탑돌이 하는 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옛날에 아주 불여우같이 만날 남을 해롭게만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선신으로서 아주 충만한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더랍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악으로다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은 선으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에 또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 그거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져나갔거든요. 악으로다 쓰는 사람 말이에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는 그런 속담 있죠. '한 도둑 열 놈이 지키지 못한다' 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재주가 좋아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났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중국에서는, 중국 땅이라도 나라가 뭐, 연나라니 초나라니 제나라니 한나라니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부잣집에, 정말 여우로서 행동을 아주 나쁘게만 하는 그 친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도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랬는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귀한 때였지, 이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하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딴 나라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사냥을 나왔는데 이쪽 왕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신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서로 싸움이 났는데 이쪽 착한 왕이 죽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 착한 여자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아하! 저 사람은 아주 착하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 22면으로 계속

